

후원회원님들 고맙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가을날씨가 곧 다가올 겨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1990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 사회에 제기하고 가해국 일본에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을 비롯한 완전한 보상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역설한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저희는 최근 일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환영하며 일본국회와 정부가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희는 정대협과 함께 가해국 일본정부를 겨냥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법정이 열립니다. 변함없이 저희 연구소를 사랑해주시는 회원님들의 격려와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등 여러 지역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더 남아있으리라 추측합니다. 저희 해외 피해자조사사업을 후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후원회비 : 월 5천원 연6만원이상

■특별후원회비 : 연 10만원 이상

-후원회원께는 연구소 소식지, 자료집 등을 발송해드리고, 연구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에 정리된 관계 자료를 열람, 또는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지로를 이용해주시거나(번호- 7 6 4 3 1 7 2) 한빛은행 126-609523-02-001 신영숙, 조흥은행 313-04-406185 정진성, 국민은행 291-24-0017-023 고혜정, 우체국 012542-02-066774 정진성, 외환은행 119-18-22152-4 여순주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동 이체 신청을 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지로입금시에는 회원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도 지로납부가 가능합니다. www.giro.or.kr로 들어가시어 위의 저희 연구소 지로번호를 기입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원과 정기후원회비를 일사불로 내신 분은 1년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회원

경우근 고영진 고혜형 권희정 그리스도성령수도회 김원옥 김경희 김민영 김선옥 김신실 김신영 민무숙
박금혜 박성자 박운옥 방기홍 변정원 손현숙 송영자 신경란 양은영 오카베토시오 이귀우 이미경 이효재
장승옥 정근식 정인섭 정연대 조성원 하일식 하정남 홍두화 국민은행 자동이체(고정휴 기 양 김기홍
김영민 김현식 김홍수 배선희 연갑수 조인호) 조흥은행 자동이체(김영미 여성과 인권연구회 유해정 전호태)
한빛은행 자동이체 (김고운 이아현 정경선) 외환은행 자동이체(김희자) 지로후원 김문선 박영애 임정연 최선애
홍성민

특별회원

강득희 강선우 강인성 고동환 객재환 관한인교회 91'서울대호우회 권재화 권태억 김경일 김대곤 김성은
김영수 김영숙 김원동 김정진 김종성 깊은 자유 나눔의 집 나애자 나카무라후쿠지 노원희 도츠카에츠로 민병갑
박봉규 박영희 박재신 박찬승 방선주 배민정 배성희 서중석 소정희 손경년 송연옥 야마노가즈코 양보경
양징자 유현석 윤경은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회 이경옥 이배웅 이숙진 이미경 이정옥 이지원 이현창
장시원 정용욱 정현백 조수월 최강호 최일숙 표창진 한기정 한명자 한상권 현일숙 홍옥주

알립니다

- 『할머니 군위안부가 뭐예요』와 『봉선화에 부치는 고백』을 할인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달에 열리는 2000년 법정기간(12월 7일부터 12일)에 연구소 사무실이 빡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달 소식지 발송작업을 김진아, 이해은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새로운 특별 후원회원 최일숙님, 관한인교회(김춘섭목사)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깊은 자유에서는 『봉선화에 부치는 고백』 책을 50권 기증해주셨습니다. 계속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지난 달 소식지에도 실렸지만 일본에서 소송 중인 재일한국인 피해자 송신도님의 고등법원 판결이 11월 30일 열립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위안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피가 통하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또 12월 6일에는 46명의 필리핀 피해자들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 법정>> 개막 하루 전날이라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 이번달에도 소식지에 글을 자청해서 써주신 멀리 미국의 방선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진품, 북한에서 만든 송화(松花)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시면 일석삼조로 북한의 산모들, 정대협과 본 연구소를 모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한곽(500그램 두 봉지 1kg)에 3만원입니다. 구입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 사무실 연락은 월, 수, 금(오전 10시 ~ 오후 5시)에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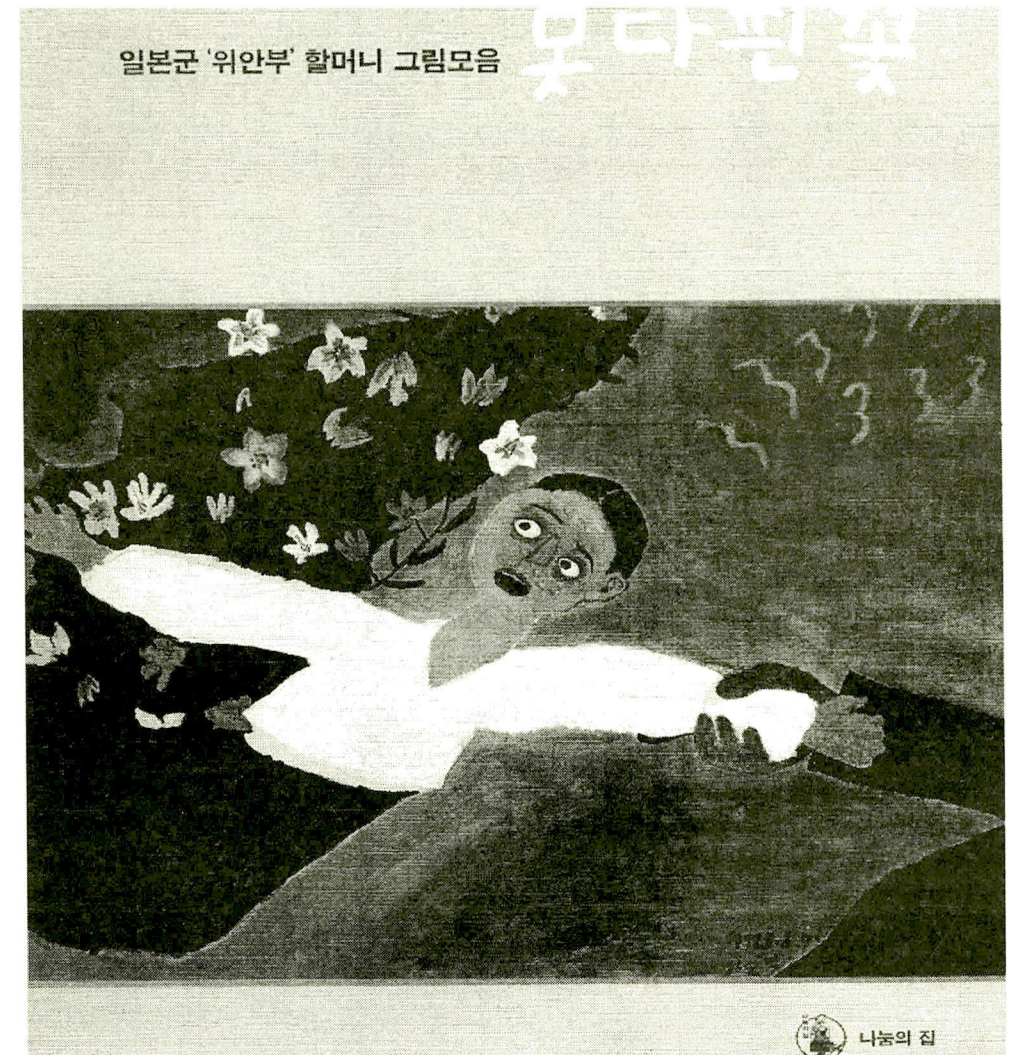
정신대연구소소식

발행일 : 2000년 11월 10일 / 발행인 : 신영숙 / 편집인 : 여순주

발행처 : (우)156-052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2동 231-82 한국정신대연구소

전화 02-814-9207 전수 02-814-9211 email : RCSD2659@chollian.net Home page : http://www.truetruth.org

한 국 정 신 대 연 구 소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CHONGSHINDAE'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그림모음 <꽃다핀 꽃>이 출판되었습니다.

- ① <꽃다핀 꽃> 출판(사진)
- ② 할머니 건강하세요
- ③ 騰衝(騰越)성명전 중의 한인위안부들
- ④ -⑤ 요코하마시 아사히구청의 [위안부문제] 클레임 사건의 失態
- ⑥ 역사왜곡의 두 거장
- ⑦ 활동보고 / 일본의 입법활동 ⑧ 후원회원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옥선, 하옥자, 김은례, 지둘이, 강일출할머니

10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할머니 몇 분을 만나 보았다. 25일, 기소장 관건해서 정대협 사무실에 들렀다. '정대협 후원의 밤' 행사 참석을 위해 정대협 사무실의 온돌방(할머니 쉼터)에 모여서 잠시 낮잠을 즐기고 계시는 모두 10여명의 할머니들을 보았다. 그 중 가장 활발히 말씀 나누시는 할머니는 중국에서 온 '이옥선 할머니'였다. 이옥선(前 중국 연길, 現 나눔의 집 거주, 국적회복추진 중) 할머니는, 내가 중국 답사 때 만나 뵈고 그 후에도 몇 번 뵈 적이 있어 인사 드리자 이내 내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리고는 나에게, 같은 위안소에 있었던 하옥자할머니(국적회복/서울 용산거주) 소식을 물으셨다. 일전에 소식지를 통해서도 전한 적이 있지만, 하옥자 할머니는 몇달 전, 중풍증세로 병원신세를 지셨다. 몇 달전, 나는 이옥선 할머니의 부탁으로 두 분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하할머니의 병환으로 그 만남은 무산되었다. 또한, 지금 하할머니는 병치로 차 중국에 떠나 계신 바람에 당분간 두 분의 만남은 좀 더 기다려야 가능한 형편이다. 이옥선 할머니는 하할머니와의 만남이 자꾸 늦추어지자 조금은 섭섭하신 눈치다.

한쪽 구석자리에 낫익은 얼굴의 김은례(서울 등촌동 거주)할머니가 낮잠을 즐기고 계셨다. 내 목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눈을 뜨시고는 얼른 눈 인사를 하신다. 김은례할머니와 나는, 할머니가 군위안부임을 신고 하였을 때 처음으로 찾아가 만났고 증언 3집에 할머니의 증언을 실은 인연이 있다. 내가 할머니 옆에 다가가자 할머니 몸에서는 온통 파스 냄새가 진동을 했다. 할머니 어디 다치셨냐는 질문에 할머니 왈, "머칠 전에 미국 가서 인권상 받고 구경 잘 하고 집에 왔잖아. 와서 그 다음날, 방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가다 와닥닥~ 넘어졌어. 하여간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할머니가 미국 가기 하루 전날, 한차례 통화를 했었다. 내가 할머니께 '몸 어떠시냐, 여행 힘들지 않으시겠냐'는 염려에 '괜찮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한번도 가보지 못한 미국땅 나들이에 약간 흥분하여 몸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 눈치였다. 평소에 전화할 때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하셨지만, 그날 통화에서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단단히 말씀하셨다. 아무튼 할머니 가슴팍 여기저기에 든 푸른 명자국이 빠른 시일 내 가시기를 바란다.

지둘이 할머니(前, 중국 흑룡강성, 現 나눔의 집 거주, 국적회복 추진 중), 여전히 이방인(?)의 냄새가 짙으시다. 우선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데다가 한국말이 서툴러 항상 혼자 앉아계시곤 한다.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나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어디인지 눈짓으로 물어오신다. 방에 있기 답답하신 지 혼자 바깥 구경 나가고 싶다고 하며 혼자 나가신다. 그래도 일전에 보았을 때 보다는 한국말을 많이 알아들으시고 중국에서 만나고 또 몇 차례 만난 덕분인지 얼굴을 알아보시고 반가워 하는 눈치시다.

내가 이옥선 할머니와의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자, 강일출(前 중국, 現 나눔의 집 거주, 최근 '국적회복'함)할머니가 대뜸 끼어들어서 한 마디 툭 던지신다. "고혜정선생이 혹시 내가 국적회복한 것 알고 있어요?" "고선생 보게든 꼭 전해줘요, 나 국적회복했다고..." 군위안부 첫 신고 때 강일출할머니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연구소 고혜정선생이다. 그래서인지 강할머니는 별 때마다 나에게 고혜정선생님 얘기를 하고 안부를 묻곤 하신다. 그리고 고선생님이 자주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며 못내 섭섭해 하는 눈치다. 내가 알기론 고혜정 선생님만큼 할머니들을 자주 찾아뵈는 경우가 드문데, 역시 처음 만나 자신의 얘기를 풀어놓았던 이에 대한 첫 정은 무척 크고 소중한 듯 하다. 이분들 외에도 문필기, 박옥련, 김군자, 황금주 할머니 등이 이날 모이셨다.

26일, <못다핀 꽃> 출판기념회에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 대부분이 참석하셨다. 이제는 할머니들이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하셔서 그런지 이날 출판기념회에 찾아온 기자, 후원자, 관련단체 회원들을 마치 집안의 주인처럼 자연스레 접대하고 음식을 접대하시고 계셨다. 내가 할머니들에게 '어제도 행사 참여하고 오늘도 참여하고 해서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여쭈었더니, 이옥선할머니 왈, "어제 행사 끝나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나눔의 집에 돌아왔어, 그래도 피곤하지 않아, 우리가 주인인데 당연히 우리가 참석해야지"라고 하며 내게 편안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할머니들!

모두 건강하시구요, 이제는 관련행사들이 할머니들의 과거 기억을 아프게 상기시키는 장이 아니라, 새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이벤트로 할머니들에게 생활의 작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서은경

이런 일을 했습니다

1. 정례회의 및 연구모임

10월 14일 윤명숙씨 히토츠바시대 박사학위논문 「일본군위안소 제도 및 조선인 군위안부 형성에 관한 연구」중에서 7장 조선국내에서의 징집구조 및 징집업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24일 증언 5집 편집 일정을 잡고 정대협 후원의 밤과 나눔의 집 출판기념회 등 관련단체 행사의 참가에 대해 논의했다.

2. 그밖의 일들

10월 16일 윤정옥 선생님, 신영숙 소장, 정진성교수, 강정숙, 여순주연구원은 정대협 <<2000년법정>> 한국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3일** 강정숙, 서은경 연구원은 <<2000년법정>> 기소장 작업회의에 참석했다. **25일** 신영숙소장과 정진성교수, 강정숙 연구원은 정대협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했다. **26일** 서은경 연구원은 <못다핀 꽃>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26일~29일** 윤정옥 선생님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00년법정>>판사단회의에 참석했다. **11월 1일과 6일** 정진성 교수와 강정숙 연구원은 기소장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5일** 문명금 할머니 장례식에 정진성 교수, 강정숙, 고혜정연구원이 참석했다. 신영숙소장은 **4일** 광주의 장례식장을 찾아 문상했다.

방문해 주신 분들 10월 30일 후원회원 이아현씨가 방문하여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서 군위안부 기술 관련 논문을 위한 추가 자료조사를 했다. 11월 8일 월간 <더불어사는 사회> 허윤희 기자가 방문하여 연구소가 준비하는 <<2000년 법정>> 관련 상황, 증언집을 내기까지 과정 등에 대한 취재를 했다.

일본의 입법활동

일본의 민주, 공산, 사민당 등 세 야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법안을 30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위안부 문제를 “옛 일본 육해군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적 행위의 강요”라고 규정,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표명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입법활동을 해온 여러 시민단체들 뿐 아니라 본 연구소를 비롯하여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피해국의 관련단체들이 이 법안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당의 의원수를 합하면 94명으로 이 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하려면 31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우익세력들이 교과서 왜곡파동을 일으키는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입법활동에 격려를 보내며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연구원 여순주)

한국에도 <전후보상속보> 탄생!

지난 8월 25일 한국에도 <전후보상속보>가 창간되었다. 삼일법무법인(최봉태 변호사)에서 한달에 두 번 A4 2면으로 발행된다. 국내외 뉴스로 나누어 전후보상 관련 재판에 관련한 소식을 주로 실고 있다. 지난 3호에는 특집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미국 내 소송을 다룬 LA타임즈 기사(9월 19일자) 전문을 번역하여 실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연방법원에 제소한 이 소송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전범재판으로 는 최초의 것이다. 이 소송은 18세기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Alien Tory Claims Act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은 국제법을 오용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혹은 미국민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안이다. 이번 소송에는 위안부 피해자로 한국에서 6명, 중국에서 4명, 필리핀 4명과 대만 1명으로 모두 15명이 참여했다. 또한 이것은 집단소송으로 원고들이 이길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다.

일본의 전후보상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전후보상실현! FAX속보>와 자매결연했다.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전화 053-743-0031, 팩스 053-753-6963, 이메일 c7430031@chollian.net으로 연락하면 된다.

역사왜곡의 두 거장(?)

지난 11월 6일 TV뉴스에서는 한 중년남자가 조그만 구덩이를 파고 무엇인가를 묻고 나서 조심스럽게 발로 흙을 다지는 장면이 화면으로 흘러나왔다. 그 남자는 일본의 동북 구석기문화연구소 부이사장이며 고고학계의 거장인 후지무라 신이치였다. 그는 180개소의 석기유적지를 발굴해서 일본의 석기 연대를 3만년에서 70만년으로 정신해 낸, 일명 “신의 손”으로 불리우는 고고학자이다. 70만년전의 구석기 유물을 몰래 묻어두는 현장을 카메라가 잡은 것으로 마이니치 신문이 추적 보도한 톱 뉴스였다.

일본이 어떻게 역사를 조작 왜곡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증표에 불과한 이 사건은 일본열도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고 한다.

이보다 더한 역사의 조작과 왜곡을 일본은 역사교과서에서 수없이 반복해 왔다. 일본의 역사 왜곡의 극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인식이다.

96년 6월 27일 반세기 넘게 은폐되어 왔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역사가 서술된 중학교 7종의 사회과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자 일본의 우익집단과 일본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학자, 문화 예술계 인사들은 일제히 “정부의 자학사관이다, 일본 정신의 해체 위기다”, 운운하며 “중군위안부 삭제 캠페인”운동에 나섰다. 그중 대표적 인물인 도쿄대 교수 후지오카 노부카츠는 96년 9월 월간지 『산사라』에 ‘오욕의 근현대사’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문부성의 부당성을 지적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왜곡을 시도했다.

후지오카는 전쟁 당시 중군 간호부는 있었으나 중군 위안부라는 말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 매춘은 합법적인 상행위였으므로 일본군 위안부는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설사 위안소 설치에 일본군이 관여했다 해도 경영한 것은 민간 매춘업자였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부성 건물 안에서 민간업자가 식당을 경영하고자 하면 그 영업을 허가해주고 식당이 영업을 하도록 문부성은 수도나 전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식의 관여를 하고 이용도 한다. 그러나 직접 경영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간 업자들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들은 국가 공무원도 아니며 국가기관인 문부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소도 군당국이 관여한 건 사실이나 문부성 내 식당과 같이 민간 매춘업자가 경영을 했으므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정부와 무관하다는 조잡한 논지였다. 강제 연행을 증거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나... 이 정도면 후지오카의 역사 왜곡은 고고학자 후지무라를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2002년도부터 사용하게 될 중학교 7종 사회과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대폭 삭제하였다고 한다.

일본 교과서 검정작업의 총책을 맡고 있는 문부상 오시마 다다모리는 지난 10월 3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정부는 교과서 개편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객관성과 정당성을 검정 기준으로 해서 민간 학자들이 쓴 교과서를 심사할 뿐이라는 것이다. 오시마 문부상의 해명은 ‘교과서 문제’를 민간학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술책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구원 이성순

자료소개(2) 騰衝(騰越)섬멸전 중의 한인위안부들

방선주(재미 사학자)

이번에는 일본군의 雲南省 2대 거점의 하나인 騰衝(Tengchung)의 위안부에 대하여 적는다. 이곳에서의 한인위안부들의 최후에 대하여는 필자가 이미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 240-244쪽에 적었다. 그런데 전호에서 지적했듯이 새로 나온 미군 <Y-Force G-2 & G-3 Daily Diary>에 의거하여 자료를 보충하려 한다. 등충은 명대에 축조된 전형적인 정방형 중국식 성으로 일변이 약 1km, 성벽높이 약 5m, 성벽폭 약 2m, 일대 인구 약 4만명이었고 영국의 영사관이 이 성안에 있었다. 마르코 폴로가 이곳을 지나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쌍방 접촉의 시작은 1944년 5월이었고 전멸은 9월 14일이었다. 이곳을 사수하는 일본군은 제56사단(통칭 龍) 148연대의 주력을 위시하여 친일 인도병, 버마마병 등 2천여명이었고 수백명의 친일주민들이 성안에 남아 있었다. 공격군은 국부군 제20 집단군이었고 미 공군과 고문들이 지원하였다. 이하 <매일작전일기>를 한인위안부와 관련하여 인용한다.

- * 1944/8/31 9시03분 제594연대 연락. 시 중심부에서 70야드까지 전진. 국부군의 손해 크다(장교 27명, 사병 215명 사상). 일본군 장교 시체 2구 발견 또 배를 가르 일본인 여성발견(also one Jap woman who had disembowelled herself). 필자가 생각컨대 이것은 할복자살이 아니라 배 안의 태아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송산, 등충 포위전에서의 일본군인의 할복자살은 거의 없었다. 자살은 총알, 수류탄 그리고 승흥(昇興) 소독약이 주종이었다.
- * 1944/9/5 11시. 어젯밤 3명의 민간인이 도망나와 아직도 270명에서 300명의 일본군이 남아 있고 풍부한 식량이 남았다고 보고.
- * 1944/9/9 전일 22시 25분 53군 보고에 의하면 5명의 일본군을 포로로 했는데 그 도망 주모자는 한인 보급관계 준위이었다. 성 안에는 아직 200명의 전투원과 300명의 부상병과 60명의 중국민간인과 30명의 한국인 위안부가 남아 있다는 것.
- * 1944/9/10 9일 20시50분 116사단 보고. **부녀자** 포함한 21명을 시내에서 잡음. 그 중에는 통역들과 1명의 한국인 포함.
- * 1944/9/14 전일 24시경 샤오소장 보고. 노획물품 경기관총 2개 소총 12개 여자 1명!
- * 1944/9/14 전일 19시 116사단 보고. 어제 일본군수비대는 연대기를 태우고 수비대장이 할복자살, 부상자와 **민간인**(필자주: 아마도 위안부를 말함)은 **살해**했다는 것. 30명의 전투능력소유자는 끝까지 항전하련다는 것.
- * 1944/9/14 11시15분 116사단 보고. 드디어 등충시 함락. 30-40명이 성밖으로 도망갔는데 그중 일부는 포로가 되거나 죽었다고 함.
- * 1944/9/15 전일 23시30분 국부군사령부 보고. 51일전 등충 외곽 라이횡산 공격에서부터 9월 14일 함락까지 2800명의 일본군 사병과 50여명의 장교가 전사. 장교와 병사 50여명 포로. 여성 13명 포로.
- * 1944/9/15 전일 18시55분 54군보고. 미치나에서 일본군에 포로가 되었고 등충에 이송된 버마마병의 이야기로는 12일에서 15일 전에 일본군은 2명의 영국인을 처형했다고 했다. 그린웨이대령이 현장에 가니 그중 붉은 색 두발을 가진 한명은 아직 부식되지 않았고 두 손을 등뒤로 결박당했고 목을 잘린 자국이 있었다. 13일 밤, 일본놈들은 30명의 **한국여성을 사살**했다(Night of the 13th, the Japs shot 30 Korean girls in the city(필자주: 아마 이것은 Greenway대령의 보고일 것이다). 등충수비대가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한인 위안부의 총수는 일반적으로 30여명이라고 서술되어 왔으나 그 중에는(한인이라고 특정짓지 않고) 등충의 **comforts girls**가 70명이라는 포로 서술도 남아 있다. 즉 등충 야전병원에 위생병으로 근무한 일등병 다카다 히데시는 “등충에 위안부가 70명 있었고 그중 10명이 병원에서 사역당했는데 함락 직전에 모두 살해되었다”(Comfort girls: 70 at Tengchung of whom 10 were attached to the hospitals. All were killed by the Japanese shortly before the city fall)라고 서술한다. 이것은 70명 모두 살육했다는 이야기인지 병원에서 사역된 10명을 모두 처형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병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문명금 할머니

10월 23일 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던 문명금할머니를 뵈고 왔습니다만 11월 3일 그만 세상을 떠셨습니다. 소식지에서도 여러번 소식을 전한 분이라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할머니는 중국 손오에서 60년 만에 귀국하신 분입니다. 영구귀국하셔서 자신이 군위안부 피해자로서 한국정부 등에서 받은 돈 모두를 얼마 전에 베트남의 한국군에 의한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몸이 그리 성치는 않으셨지만 자신의 힘으로 다니시고 나눔의 집 최연정자로서 조용한 웃음으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월말 여동생댁에 가셨다가 긴 여행이 무리였는지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병이 점점 중이였는지 모르지만, 요새 의뢰대란 덕분에 이리저리 병원을 옮기시다가 뇌근색, 폐경 등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간 10월 23일에는 눈은 뜨고 오른손도 올렸다내렸다 하지만(몸 왼쪽은 마비상태) 눈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지키는 이의 말을 들으면 돌아가실때 너무나 평온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11월 5일 할머니의 장례식엔 연구소의 정진성, 고혜정 연구원도 함께 하였으며 베트남 전쟁진실위원회 여러분도 오셨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연로하신 까닭에 늘 비보를 접하곤 하지만 또 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할머니 한분한분 결연을 맺어 보살펴드리면 좋을터인데... 특히 중국에서 돌아온 분들은 정말 배려해야 하는데... 문명금 할머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십시오. ㄴ 김정숙

요코하마시 아사히 구청의 [위안부문제] 클레임(claim) 사건의 失態
-이제 행정지도에서 시민주도로 전환을-

야스모토 세쓰코
([젠더 프리의 회] 대표)

클레임을 받은 경과를 더듬어 보면 8월 1일에 전단 배포 중지 권고가 있었고 8월 4일에는 구의 위탁 임을 그만두고 자주적 강좌로 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그리하여 8월 7일, 우리는 이러한 위탁사업으로서 강좌 중지와 사례금 반환 권고의 철회를 구에 대해 요구하였다. 그 후 위탁사업으로서의 인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며 강사의 인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8월 10일에는 강제연행, 전쟁책임 등의 용어를 전단에서 빼도록 지시하고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알고 강사로 예정된 서경식(도쿄경제대학)씨가 장문의 성의 있는 편지를 담당 계장에게 보냈다. 이 편지는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거기에는 의뢰 받은 강연 내용인 [종군위안부문제- 전쟁책임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그야말로 여성의 인권문제로서 보편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 못하고 편협한 정치적 과제로 규정하는 구측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또 강연의뢰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운영위원의 자주적인 판단 능력을 한단계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이 두 가지 점에 관해서 9월 11일의 사까(阪)계장의 대답은, 우리들(젠더 프리의 회)의 자주적 판단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견이 갈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등, 문제점을 흐리고 전혀 서선생님의 견해를 무시하였다.

8월 18일의 전단 전면 변경 강요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우리가 만든 전단과 행정기관에서 만든 전단을 비교해 보고 적어도 [종군위안부]의 제목 자체는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타협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에는 행정 측이 다시 제목을 변경하여 [종합적 젠더 프리의 학습을 향하여]로 바꾸어 버렸다. 또 전단을 배포하는 곳도 과거의 수강생들에 한정하고 더 넓게 배포할 수 없게 하였다. 우리들은 이 단계에서 행정 측의 횡포에 기가 막혀 [이제 마음대로 해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 정도로 우익을 무서워하고 견제하려고 한 것이다.

9월 30일의 강연회 당일까지, 아사히구청에서는 9월 23일의 현민센터에서 열린 [숨결] 상영회 때 우익들의 손에 우리들의 전단이 전해졌으니 단단히 각오해서 임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고, 강연회 당일에는 아무런 기척도 없는데 다른 부처의 직원을 순회시키는 등의 지나친 경비를 했다.

10월 1일 아사히신문 전국판에 이러한 행정 압력에 대해 사실 오인 없이 쌍방의 주장을 잘 들고 요약된 취재 기사가 실렸다. 그 날 아침부터 매일과 같이 전화가 걸려왔다. 각 신문사(공동통신, 마이니찌 신문, 도쿄신문), 시민단체, 개인들로부터 문의가 왔다. 또 시민들은 아사히 구청에 대한 항의 전화 뿐만 아니라 팩스로 항의문, 공개질문서를 보냈다. 긴끼대(近畿大)의 오오고시 아이꼬씨가 보내준 항의문에는 [暴擧]라는 말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주제의 변경을 강요한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방해와 독단적 횡포에 대해서였다. 한국정대협 외 5단체가 보내준 공개서한에는 다음의 세가지 주장이 담겨져 있었다. 1) 아사히구 홍보지를 통해서 사까 계장의 행위를 반성하는 글을 실을 것, 2) 그들의 행위의 오류를 인정하고 위안부피해자들과 시민에게 사죄할 것, 3) 이 문제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취급해 나갈 것을 홍보지를 통해 알릴 것. 또 가나가와(神奈川)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은 [운영위원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압력은 젠더 연구에 대한 경시, 모멸, 또는 고압적인 태도이며, 이러한 기회주의적이고 배외주의적인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쓰여져 있었다.

이러한 항의문 속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우리를 젠더 프리의 회가 행정과 수차례에 걸쳐서 교섭하는 속에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느낀 것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행정기관의 중지 압력에 굴복하고 전단의 전면적 변경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다.

많은 항의를 받은 행정기관이 어떤 회답을 해 올지 궁금하다. 이번의 행정측의 행동은 완전한 失態였다고 심판은 내려진 것이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 시민들의 학습력, 지식, 경험이 행정측보다 높아진 현실을 당국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시민주도의 생애학습 추진 사업을 다시 지원할 생각은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는 이제 앞서가는 시민들의 뒷면에서 환경을 정비하는 역할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2000 11.5)

* 요코하마시 아사히 구청 관련 건은 일본에 있는 야마시다영에 연구원의 정보제공으로 한국에 알려졌다. 그리고 공개서한을 관련단체에게 제안하여 동의를 얻어 발송했고, 공개서한의 초안과 일역을 야마시다연구원이 담당했다. 이 글의 이해를 위해 자료 1 아사히 신문기사와 자료 2 공개서한을 소개한다.

자료1 『아사히신문』(2000년 10월 1일)
강연회의 [위안부]삭제
요코하마시 측, 주최단체에 지도

제목에서 [종군위안부]라는 단어를 뺐. 전단에 있는 [전쟁책임] [강제연행]도 삭제. 종군위안부문제를 테마로 요코하마시내에서 30일에 열린 강연회에 대해, 동시아사히구청이 사전에 이러한 지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졌다.

강연회는 동 구의 위탁사업의 하나로서 요코하마시의 시민단체 [젠더 프리의 회]가 주최. 여성문제를 테마로 동회가 7월부터 시작된 연속강좌의 마지막 회에서 강좌 전체가 아사히구의 생애 학습사업으로 인정되어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10만엔의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다.

마지막회는 도쿄 경제 대학 강사인 서경식씨가 [종군위안부문제, 전쟁책임과 성폭력에 대해서]라는 테마로 강연하는 것이 4월에 기획서를 낸 시점에서 정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동회가 8월에 전단을 만들었는데, 구의 담당자가 [이 문제는 시민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고 하여 갑자기 중지를 요구했다.

교섭끝에 구 측은 개최를 인정하는 대신, 강연회의 제목과 전단 내용에 대해 변경할 것을 지시. 제목은 최종적으로 [종합적 젠더 프리의 학습을 향하여]로 변경되었다. 전단에서는 [전쟁책임] 등의 단어가 삭제되었다. 전단을 배포하는 곳도 지금까지의 강좌 수강자만으로 제한할 것을 약속시켰다고 한다. 동회의 야스모토 세쓰코 대표는 [본의가 아니었지만 중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구청은 [공공사업인 이상 시민 사이에 의견이 갈라지는 테마를 취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다. 강연회는 30일, 예정대로 열렸고 약 40명이 참가했다.

자료2 공개서한

요코하마 시장 高秀 秀信 귀하
요코하마시 아사히구청장 加藤 智 귀하
아사히구 생애학습지원계장 阪 健治 귀하

우리들은 지난 10월 1일의 아사히신문 기사 및 관계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사히구 생애학습사업으로서 행해진 연속 강좌의 마지막 회에 예정된 서경식씨의 강연에 대해 저절리진 부당한 압력에 대해 놀라움과 실망,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니다.

1990년에 한국에서 문제제기 된 [종군위안부문제]는, 그 해해국 일본에게는 여성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게 한 것은 물론 대만,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문제,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침략전쟁문제 등을 반성하고 일본사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또 국제화시대에 일본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아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도 불충분하나마 수상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몇번 표명하였으며,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역사교육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도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채 보수세력의 압력으로 역사교과서의 관련기술이 삭제되는 등 우려할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행정은 출신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고 교육의 자리를 마련할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의 생애학습 등을 구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 구의 생애 학습지원계장은 지원은커녕 중지를 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취하여 집요한 압력을 넣어 원래 제목인 [2000년 종군위안부문제, 전쟁책임과 성폭력에 대하여]를 [종합적 젠더프리의 학습을 향하여]로 변경시켰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단에서 [전쟁 책임] 등의 단어를 삭제시켜 [위안부]문제와 전쟁책임문제를 취급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지는 주제를 취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전혀 의미 불명한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일본국민의 대표인 수상의 사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 젠더프리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중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들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번 구 측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담당인 사까 겐지 계장은, 이번의 자신의 행위를 밝혀서 반성하며 그것을 구 홍보지를 통하여 아사히 구민에게 알릴 것.
2. 상기 계장 및 구장은 이번의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및 아사히 구민에게 사죄할 것.
3. 앞으로 구 행정으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구 홍보지를 통하여 밝힐 것.

상기에 대한 요코하마 시장, 아사히구청장 및 동 구 생애학습지원계장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00년 10월 13 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전화 02-365-4016, 팩스 02-365-4017)

한국정신대연구소(전화 02-814-9207, 팩스 02-814-9211)

경남 정신대문제 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전화 055-298-7498)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전화, 팩스 053-257-1431)

나눔의 집(전화 031-768-0064, 팩스 031-768-0814)